

일본 신사 닳은 31억짜리 상징조형물



홍경안 의
시시일각

한국엔 보편적 대중 정서와 미적 가치가 반영된 소통 중심의 '공공미술'과는 거리가 먼 조형물이 넘쳐난다. 공공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으로 '혈세 낭비'라고 비판받는 조형물 또한 가득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중화장실 겸 조형물인 경북 군위군의 7억원짜리 '대추화장실'이다. 세금 15억원이 쓰인 강원도 고성군의 '항아리 조형물 겸 건축물' (일명 진격의 농부)도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밧도 못 짓는 괴산군의 5억원짜리 '대형 무쇠술'이나 3억원이 들어간 청양군의 '황금 복 거북', 5억2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보령시의 '갈매기 형상 조형물'도 돈만 쓰고 효율성을 상실한 조형물로 언급된다. 하나같이 시민 공감은커녕 애타단지로 전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의 조형물 사랑은 남다르다.

강화도도 그 중 하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지난 3월 시·도 경계인 인천 강화대교 입구에 강화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강화읍 갑곶리 산 6-3일원 48국도변에 세워지는 이 조형물은 길이 42미터, 높이 11.5미터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졌다.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10%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8구, 2군을 통틀어 하위 2~3위를 다룬다. 이런 현실을 간과한 체 세금 31억원이 투입되는 조형물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 지역 내 일부 언론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지난 10일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 없이 관문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단체장들이 임기 중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과 근거 없는 관광 진흥 낙관론이 대형 조형물 건립의 발단임을 지적하며 늦었지만 군민과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색(倭色) 짙은 조형물 디자인은 논란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산성 동문을 모티브로 처마와 성벽을 재해석한 조형물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 신사(神社) 입구에 설치되는 '도리이'(鳥居)와 닳았다고 주장이 나온다. '도리이'는 신사 앞에 세우는 전통적인 문으로, 신이 머무르는 영역과 인간이 사는 영역을 구분 짓는 경계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커뮤니티에선 '돈 낭비'라며 조형물 대신 차라리 주말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리 하나를 더 놓으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라는 요청이다.

문제는 사용자 관점을 우선하는 정책, 주민의견을 보다 폭넓고 밀도 있게 경청하려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형 조형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 중심적 사고와 낮은 미의식,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민 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선 통제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매경 예술감독

“포털 알고리즘 개선, 법적 규제 능사 아냐”



기지수첩
채윤정 (산업부)

포털의 뉴스·쇼핑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포털의 뉴스 배치 등 알고리즘 혁신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 위원은 늦어도 7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김남국 의원 발의의 '신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포털의 AI 알고리즘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는 항상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큰 화두가 됐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털 알고리즘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고리즘은 AI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청회에 참가한 카카오 실장은 행사 내내 이 같은 답변 만을 되풀이했다. 결국,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포털 책임자에 "사람이 알고리즘 설계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냐"고 추궁해 포털 참가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 편향성이 그대로 답질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어떻게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가 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

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여러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만큼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몇몇 발제자들은 업계 자율, 민간 차원에서 개선안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주도해 강제적 법적 규정을 만들기 보다 정부 관계자, 관련 위원회, 생산자인 포털,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소비자 등이 참여해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포털 알고리즘 공개 및 검증 방법이 결정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면 정부의 '언론 검열'이라는 문제가 또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공개해 검증받아야 하는지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포털 알고리즘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검증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AI 전문가 echo@

오늘의 운세 6월 16일 (음 5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건강을 유지. 48년생 마음이 우울하나 자식이 기쁜 일을 알려준다. 60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72년생 맑은 일은 책임지고 완수할 줄도 알아야. 84년생 일확천금과 불로소득이 생각날 수.
- 소** 37년생 매너와 도덕을 지키니 내 마음이 편하다. 49년생 배우자의 과소비와 사치를 줄여보도록. 61년생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끊어지지 않을 듯. 73년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85년생 걷기 운동은 필수일 듯.
- 호랑이** 38년생 반려견과 나갈 때는 다른 반려 견을 주의. 50년생 손님이 반가운 소식을 듣고 오니 하루가 즐겁다. 62년생 할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룬다. 74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나 결실을 이룬다. 86년생 밤중에 비단옷 입고 활보하는 격.
- 토끼** 39년생 소풍을 가더라도 사전 준비를 하고나서. 51년생 집안에서 경제에서 세대교체. 63년생 소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게 인간사회. 75년생 휴일 없이 종일 바쁘다. 87년생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 염** 40년생 골치 아픈 인연에 엮이지 말 것. 52년생 만나는데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4년생 경료와 인성 지식이 갖추어져야 할 듯. 76년생 천년을 가는 사랑을 느낀다. 88년생 자신의 특기를 자랑으로 생각하느라 별거 아니다.
- 뱀** 41년생 집 뒤의 야산으로 산책을 가보라. 53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5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야. 77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89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피서를 떠나 기분전환.
- 말** 42년생 시택관계에서 시누이와 다투어. 54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6년생 회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구상하자. 78년생 남의 도움을 받으라 시비도 있다. 9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 양** 43년생 남자역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55년생 성공이 지척인 듯하나 마음만 바쁘다. 6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시작해 보자. 79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할 운. 91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 원숭이** 44년생 조상 천도제를 올려보라. 56년생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8년생 오늘 준비를 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80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92년생 유능한 선배를 떠나지 않도록.
- 닭** 45년생 낭비벽이 심한 가정사로 애가 탄다. 57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69년생 인제가 쉬고 있으니 조직에서 손실. 81년생 강을 무사히 건넜으면 배도 소중히 간직. 93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 개** 46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관리에 힘써라. 58년생 다정도 지나치면 병이니 가족에게 잔소리를 삼가라. 70년생 조금이라도 화를 부르면 느긋하게 행동. 82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대립으로 마음이 불편. 94년생 월급으로 실비보험을 계약.
- 돼지** 47년생 직장생활에서 온 노후가 가파. 59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1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는 날. 83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95년생 중매가 들어오니 선택을 해보라.



김상회의四季 가상화폐 투자 열풍

시대에 관계없이 재물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채테크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에 가상화폐는 열풍이라고 말할 수도 부족할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가격이 순식간에 뛰면서 투자금이 몰려들고 어떤 가상화폐는 하루에 5만%가 올랐는데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투자자는 2030세대가 가장 많았는데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급격하게 된 집값이 큰 영향을 미쳤다. 투기 같은 투자만이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가상화폐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거래된다. 국경이 없고 쉬는 시간도 끝나는 시간도 없다. 휴일 없이 그리고 24시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루에 수십 번을 사고파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손실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아찔하다.

한 달 사이에 몇 배가 올랐다고 기뻐했다가 며칠 만에 그 이상으로 하락하는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몇 달 만에 큰 수익을 올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기사도 나왔다. 기사에서만 보았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몇 십 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필자에게 방문을 했다.

이런 상황이니 사람들이 확 달려드는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각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광풍이 곧 식을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고 가치가 없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거래되는 가상화폐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 많은 걸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욕심 가리기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투자는 자산이 급세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순식간에 자산을 거의 잃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을 늘려라**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토쿠365 | 10,000원

	4				2			
		1				7		
			4	1				
3			6	8				5
			7	5	3			
1			2	4				6
			1	2				
		8				3		
	1							6

			1		5	2		
9	4		2				1	
2								
			7					1
	2		9	1			7	
1			3					
								8
	8		4				9	2
	1	3		2				

정답

8	9	2	4	8	9	1	6	
4	1	8	9	9	6	8	2	2
2	9	6	2	8	1	8	9	4
9	8	8	4	6	2	4	9	1
2	6	1	8	9	4	4	8	9
9	4	4	8	1	9	6	2	8
8	9	1	2	4	2	6	9	
6	4	2	9	2	9	1	8	8
1	2	9	6	8	8	9	4	2

9	9	4	2	6	8	8	1	2
2	6	1	2	4	8	9	8	9
8	8	2	9	1	9	2	6	4
9	9	2	8	8	4	6	2	1
8	2	8	1	9	6	4	2	9
1	4	6	9	2	2	9	8	8
4	8	8	6	9	2	1	9	2
2	1	9	8	2	9	8	4	6
6	2	9	4	8	1	2	9	8

과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71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819호	